



이용수 |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수자원개발부
 (lyswater@dohwa.co.kr)

태화강 발원지 답사기

일시: 2009년 11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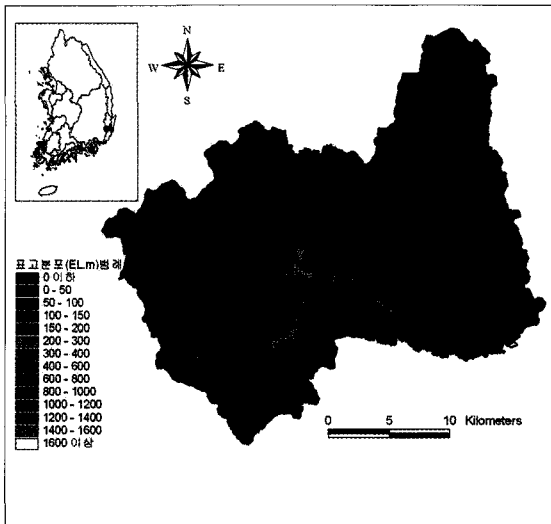
1. 태화강 개요

울산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산과 물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지역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역사적으로도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등 선사시대 조상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의 도시이다. 또한, 울산은 장엄하고 수려한 가지산과 동해로 유유히 흐르는 태화강의 정기를 받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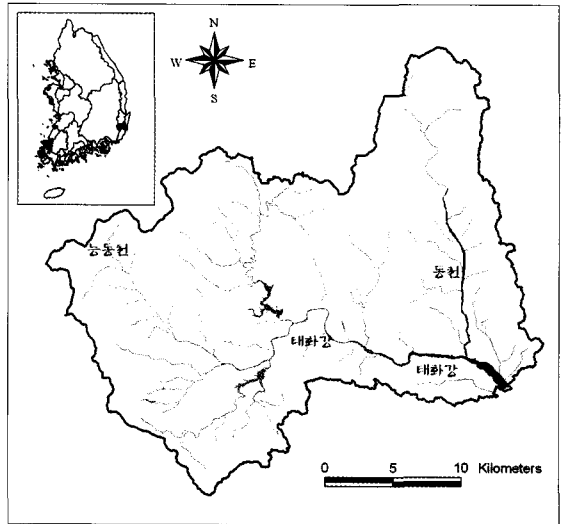
울산광역시의 주요 하천은 서고동저형 지형을 따라 동해로 흐르는 태화강(太和江), 회야강(回夜江)이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지천이 100여 개가 산재해 있다.

태화강은 울산광역시를 가로지르는 가장 큰 하천으로 낙동강권역 동쪽인 동경 129°04"~129°25'24", 북위 35°27'21"~35°45'39" 사이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경주시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구, 중구, 남구의 1광역시 1도 1시 1군 3구를 포함한다. 태화강유역은 서쪽으로는 낙동정맥이 분수령을 형성하며 낙동강유역의 밀양강유역과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회야강유역과 접하며, 북쪽으로는 형산강유역, 동쪽으로는 낙동강동해권역의 대동천 중권역과 접하고 있다.

태화강은 상북면(上北面) 가지산(迦智山, EL.1,241m) 및 두서면(斗西面) 백운산(白雲山, EL.892m)에서 발원하여 태



<그림 1> 태화강 표고분포도



<그림 2> 태화강 하천분포도

화강과 대곡천이라는 이름을 얻어 동쪽으로 흐르다가 범서면(凡西面)을 지나면서 합쳐져 울산광역시 중앙을 흘러 울산만으로 흘러든다. 상류에 좁은 곡저평야와 유역 하구 부근의 동천(東川)과 합류하는 곳에 울산평야가 형성되어 쌀·맥류·잡곡·과일 등을 생산한다.

태화강의 유역면적은 660.86㎢이고, 유로연장은 46.13km, 최원유로연장은 46.65km이다. 유역둘레는 162.28km이고, 유역평균폭은 14.17km, 유역평균표고는 EL.188.4m, 유역평균경사는 27.70%이다.

회야강은 양산시 웅상읍 원효산(元曉山, EL.920m)에서 발원하여 남동류하다가 덕계천과 합류하고 북동류하면서 방향의 큰 변동 없이 지류를 합류한 후, 웅촌면 대북리 부근에서 대북천을 합류케 되며 그 후 직동류하다가 심한 사행(蛇行)을 이루면서 회야댐 지점에 다다르게 된다. 회야댐을 거친 회야강은 남쪽으로 잡고 여러 번의 굴곡을 이루면서 유하, 남창천을 우안측으로 합류케 한 후 남동류하면서 동해로 유입된다.

회야강은 유역면적 220.80㎢, 유로연장 41.7km의 중소하천이다. 회야강 유역은 대체로 동서로 뻗은 장방형(長方形)의 형상을 이루며 남북의 길이는 약 19.1km, 동서로는 22.3km가 된다.

태화(太和)란 '천하가 태평하고 화목하다는 뜻으로서 불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신라시대 10대 사찰의 하나인 태화사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태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5년에 자장율사가 중국 산둥반도에 있는 태화지면을 지날 때 신인의 계시를 받고 돌아와 사포(지금의 태화지역)에 자리를 잡고 지은 절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태화강이나 태화루, 태화교, 태화로터리 등의 이름이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¹⁾

아주 옛날 우리 겨레가 삶을 찾아 남(南)을 향해 내려올 때 남을 앞이라 하고, 뒤를 북(北)이라 불렀다. 조선 중종 때 만든 훈몽자회에 '南을 앞남' '北을 뒷북'이라 풀이한 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울산도 뒤에 산을 등지고 앞에 강을 끼고 터를 잡았으니 강 이름을 앞강(南江)이라 불러오다가 신라 때 한 역사적 연유 때문에 태화강(太和江)이라 부르게 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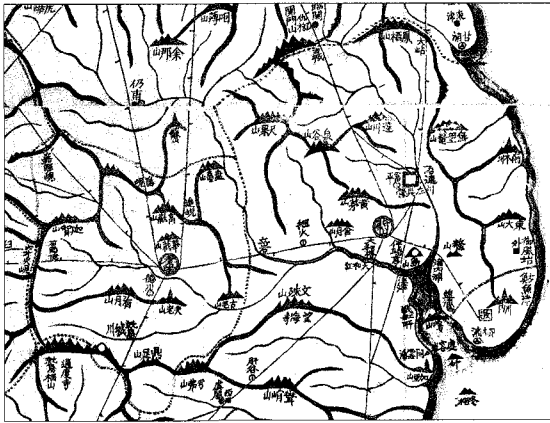
다.

신라 때 자장율사와 관련된 연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 27대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제자들을 데리고 불교 문화의 수입처 당(唐)나라에 유학을 갔는데 산둥성(山東省)의 오대산(五臺山)에서 문수보살의 계시를 받고, 그 아래 있는 태화지(太和池) 못 가에서 신인(神人) 즉 용(龍)을 만나는데 용이 말하기를 「황룡사의 호국룡은 나의 맏아들이요, 거기에다 9층탑을 세우면 구한(九韓)이 조공해 오고 나라가 편안할 것이요. 그리고 경기 남쪽 땅에 절을 지어 나의 복을 빌어주면 나도 또한 그 은덕을 값으리다.」하고 옥을 비치고 사라졌다 한다. 자장(慈藏) 일행은 오랜 수행을 마치고 불사리·불경 등 많은 선물을 얻어 배를 타고 서해(西海)를 건너 오게 되었는데 당시의 항해장비와 기술로서는 생사(生死)가 반반(半半)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장 일행은 태화지용의 가호(加護)를 굳게 믿고 무사히 대해를 건너 우리 땅에 도착하니 그곳이 아곡현(阿谷縣, 울산)의 사포(絲浦)이니 지금의 태화강 용금소였다. 그래서 자장 일행은 생명의 은용(恩龍)이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 호국용을 위해 강물이 가장 깊은 물속에 살게 하니 그곳 이름이 '용큰소'니 한자(漢字)음을 표기하니 '용금(龍黔)소'요, 또 '한용소'라고도 불렀는데 한자 표기로는 '황룡연(黃龍淵)'이라고 기록해 왔다. 그리고 용의 소원에 따라 용금소의 위 언덕의 안쪽에 절을 지어 용의 복을 빌어주니 이름이 태화사요, 강 언덕에 종루를 세우니 태화루라 하고, 강 이름 또한 태화강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자장 일행이 아곡현(울산)의 사포(황룡연)에 도착한 해가 선덕여왕 12년(643)이니 지금부터 1362년 전의 일인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강(江) 전체를 태화강이라 부르고 있지만, 고종 8년(1871)에 만든 「영남읍지」 울산 지도를 보면 용금소가 있는 일대는 태화강(太和江)이라 기록하고 그 하류 쪽은 앞강(前江)이라는 이름이 있음을 보아, 옛날 금소와 그 일대는 태화강이라 부르고 성남·옥교동 앞쪽은 옛 이름 그대로

1) 태화강 보전회 - <http://www.taehwegang.or.kr>



(그림 3) 대동여지도 상의 태화강

앞강이라 불려온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상에 있는 태화강의 발원지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2권 울산군(蔚山郡)편의 산천조에 「황룡연(黃龍淵) : 고을 서쪽 10리에 있으며 곧 대화진의 상류이다. 대화진(大和津) : 대화루 아래 있다. 주진(注津) : 고을 남쪽 4리에 있으며 곧 대화진의 하류이다. 굴화천(掘火川) : 굴화역 동쪽에 있으며, 곧 입암연 하류인데 대화진으로 들어가며 어량이 있다. 입암연(立巖淵) : 고을 서쪽 20리에 있으며 언양현(彦陽縣) 남천(南川) 및 취성천(鷲城川)이 합쳐 흘러서 이 못이 되었다. 바위가 물 가운데 탑같이 서 있고, 그 물이 검푸르러서 세상에서 전하기를 용이 있어 가물 때에 비를 빌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언양의 남천과 취성천이 합하여 입암연이 되고 굴화천, 황룡연, 대화진, 주진의 순으로 이름이 바뀌어 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대화진은 곧 태화강을 말한다.

제23권 언양현(彦陽縣)편의 산천조에는 「남천(南川) 현의 남쪽으로 1리에 있으며, 물의 근원은 석남산에서 나와서 울산군(蔚山郡) 대화진(大和津)으로 흘러들어 간다. 취성천(鷲城川) 현의 남쪽으로 10리에 있으며, 물의 근원은 대석산에서 나와서 여남천(與南川)과 합류하여 대화진으로 흘러들어 간다.」하였다. 태화강의 상류에서는 언양 남천으로 불렸고 발원지가 석남산임을 밝히고 있다. 석남산은 현재의 가지산을 말한다.

대화진 또는 태화강의 발원지에 관한 더 이상의 글이 없

는 것이 아쉽다.

현재는 태화강의 발원지로 어디를 보고 있을까? 백과사전을 뒤져보면 먼저 야후백과사전에 태화강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에서 동해로 흘러드는 강. 길이 41.5km. 유역면적 626 km². 상북면(上北面) 고현산(高獻山, 1033m)에서 발원, 남동쪽으로 흘러 언양면(彦陽面)·범서면(凡西面)을 지나며 작은 지류와 합류되고, 울산광역시 중앙을 흘러 울산만으로 흘러든다.』²⁾고 되어 있어 고현산을 발원지로 보고 있다. 지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한번만 들추어보면 아닌 것이 명백하지만, 아직도 백과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

위키백과를 인용한 다음 백과사전에는 『태화강은 울산광역시의 동서를 가로질러 흐르는 대한민국의 강이다. 울산 서부지역 산지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며, 울산만을 거쳐 동해로 이어진다.』³⁾라고 되어 있어 울산 서부지역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가지산 쌀바위와 백운산 탐골샘을 분리하여 각각 역사적 발원지와 지리적 발원지로 구분해 적어 놓고 있다.

태화강 발원지에 관하여는 최근에 울산발전 연구원에서 발원지 찾기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 공표하였다.

『가지산 쌀바위는 역사적인 자료와 함께 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온 태화강에 대한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태화강의 역사적, 문화적 발원지로 지정하고 백운산 탐골샘은 지리적 최장발원지로 지정. 관리되어야 함』⁴⁾, 즉 가지산 쌀바위가 기왕의 태화강 발원지로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역사적, 문화적 발원지로 남겨두고 새로이 답사 및 계측에 의한 방법으로 찾은 백운산 탐골샘은 지리적 발원지로 남겨두자는 의견인 것이다. 발원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욕을 높이 평가하여야 하는 대목이다.

2) 야후백과사전 : <http://kr.dic.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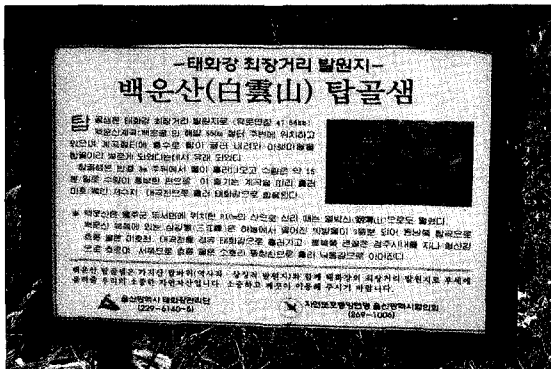
3) 다음백과사전 : <http://enc.daum.net/dic100>

4) 태화강관리단 - <http://taehwagang.ulsan.go.kr/index.htm>

2. 현지답사

태화강 발원지 답사는 2009년 11월 6일 시행하였다. 미리부터 준비한 지도며 답사용구를 챙기고 5일 오후에 경주에 내려가 1박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였다.

아침 일찍 김밥을 사서 운전을 하면서 언양 쪽으로 차를 몰아 두서면 내와리에서 산을 하나 넘으니 백운산을 오르는데 길과 미호(북안)저수지로 흘러드는 탐골계곡이 나타났다. 얼마를 찾길로 올라가니 길옆에 '태화강 최장거리 발원지 백운산 탐골샘'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울산광역시 태화강관리단에서 세운 간판으로 사진과 함께 발원지임을 알리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드디어 계곡을 올라갔다.



〈그림 4〉 발원계곡 입구의 입간판

계곡은 물도 제법 많이 흐르고 있고 가을이라 단풍이 많이 들어 있었다.

한참을 오르면서 주위를 살피고 휴식도 취하면서 경치감상을 하였다. 그간 회사일로 무척 바쁘게 보냈던 지난 여름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 기분이 무척 좋았다.

계곡을 따라 오르려니 물길 사이로 커다란 바위가 많이 굴러와 있어 군데군데 작은 폭포가 형성되며 정겨운 물소리를 내면서 아래로 흘러갔다. 이곳은 비교적 등산객은 자주 오는 지역이 아닌 듯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었다.

얼마를 오르니 앞에 보이는 커다란 바위에 '태화강 발원지 탐골샘'이라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여기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찾아놓은 탐골샘인 모양인데 물이 말라 있어 샘이 어

디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아마도 그때는 샘이 있었고 물이 얼마만큼은 흘러나오고 있지 않았을까? 섬진강 발원지라 일컫는 '데미샘'이 연상되었다. 아주 비슷한 간판과 형태가 연출되어 있는 것이 필자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하였다.

글씨가 써진 바위를 중심으로 좌우로 하천으로 보아도 충분한 정도의 물길이 형성되어 있었다. 우연히도 지도의 하천 시작지점이 바로 탐골샘이 있는 지점이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주위경치를 둘러보고 사진을 찍어 두었다.

백운산을 향하여 지도에 미리 그어놓은 가상하천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바위가 많다는 것과 단풍나무의 단풍이 덜 떨어져 있어 약간 스산한 점을 제외하고는 힘이 많이 드는 산행은 아니었다. 얼마를 지나면서 부터는 경사가 급하고 잔가지가 많은 나무가 앞을 가려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었다. 역지로 수풀을 헤치면서 올라가니 드디어 물길이 끊어지는(시작되는)지점이 보여 이 지점을 발원지로 정하였다.

사실 준비한 지도에는 백운산의 여러 지점을 발원지 후보지로 표시하였는데 미리 표시해둔 지점에 가깝기도 하고 다른 지점과의 거리도 오차범위 이내여서 다른 지점을 답사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림 5〉 태화강 발원지

태화강의 발원지는 GPS좌표로 확인한 바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백운산 남동 계곡으로 해발 845m 지점의 북위 35°40'18", 동경 129°06'17"(GRS80좌표계)로 확인되었다. 이는 탐골샘보다 약 700m 정도 더 올라간 지점으로 더 이상의 물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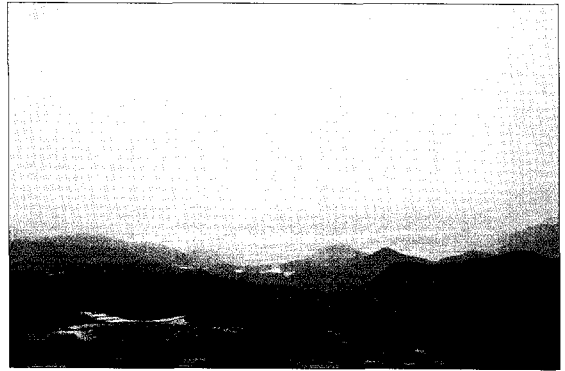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백운산 정상을 올라가 커다란 바위 위에서 경주 및 언양 쪽을 바라보며 천 년고도 신라의 향기를 느꼈다.

백운산은 신라 때는 열박산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신라의 명장 김유신이 17세 때에 단석산 석굴로 들어가서 고구려, 백제, 말갈의 적진을 물리치고 나아가 삼국을 통일할 능력을 하늘에 빌고 있을 때, 난승이란 한 늙은이가 나타나서 그에게 방법과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그 이듬해(서기 612년)에 이웃 적병의 침공을 당하여 김유신은 더욱 비장한 각오로 혼자서 보검을 들고 열박산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우며 하늘에 빌기를 「적국이 무도하여 시랑과 범이 되어 우리 강역을 침략하여 거의 편안한 해가 없습니다. 나는 한낱 미약한 신하로서 재주와 힘을 헤아리지 않고 뜻을 화란소청에 두고 있사오니 상천은 하감하시와 나에게 능력을 빌려주십시오。」라 하였다. 그랬더니 천관신은 빛을 내리어 보검에 영기를 얻었고 3일 되는 밤에 허숙과 각숙의 두 별이 뻗친 신령한 빛이 환하게 내려 달으니 동요하는 것 같았다고 전하여 온다.

위와 같은 이야기로 미루어볼 때 열박산은 예로부터 신령한 산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열박산은 언제 백운산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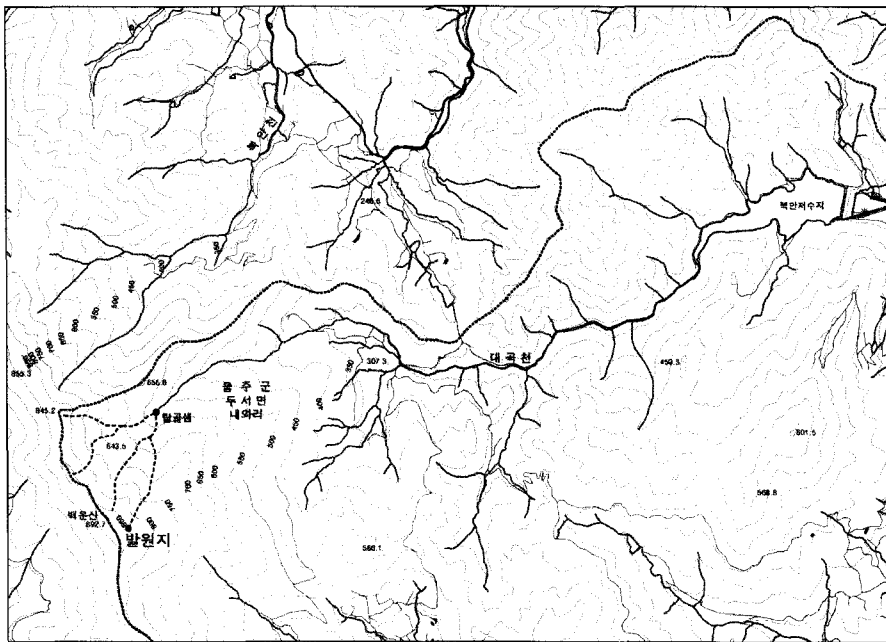
로 바뀌었는지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열박」의 본뜻, 환하게 열린 산이란 뜻을 그대로 가진 산 이름이라 하겠다.⁹⁾

이후 북쪽으로 길을 들어 삼강봉을 올랐다. 이곳 삼강봉은 북쪽이 형산강, 서쪽이 낙동강의 지류인 소호천-운문천 그리고 남쪽 및 동쪽이 태화강으로 분수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태백시 삼수봉과 유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후 계곡을 미끄러지듯 내려와 탐골샘을 거쳐 하산하였다. ●



(그림 6) 삼강봉에서 바라본 경주 시내

9) 한국의 산하 - <http://www.korassanha.net/>



(그림 7) 태화강 발원지